

3개 협의회 개편

협회사 6개 분야별 협의회의 개편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협의회는 사업분야별로 같은 업종의 회사로 구성된 자율 협의기구인데 올해 초경량항공기협의회가 신규로 구성되었다.

협의회는 회원사의 신청을 받

아 구성된 것으로서 초경량항공기협의회, 우주협의회, 소재협의회 등 3개 협의회는 개편을 마무리 했다. 기체, 전자·보기, 엔진 등 나머지 3개 협의회도 개편을 추진 5월까지 모든 협의회를 재검할 예정이다.

각 협의회는 업체 자율로 의장을 선정하는데 △초경량항공기

협의회는 신라항공, 우주협의회는 대한항공, 소재협의회는 한국로스트왁스공업이 각각 의장사로 선출되어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 가기로 했다.

각 협의회 구성원은 아래표와 같다.

협의회 구성현황

협의회명	회 원 사
기체협의회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한라중공업, 현대기술개발, 기아기공, 대신금속, 한국로스트왁스, 한화기계, 한국화이바, 오리엔탈, 덕산항공, 동서항공, 동양노즐, 두원중공업, 삼선공업, 아시아나항공, 우신기연, 제일모직, 천지산업, 한국금형, 한벨헬리콥터, 환웅정공, 은유항공정밀, 재영금형정공, 서울차체공업, 신라항공, 우주항공산업, 서울차륜공업, 수성공업사, 세일중공업 (이상 31개사)
우주협의회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한라중공업, 현대기술개발, 기아기공, LG정밀, 한국로스트왁스, 한화기계, 현대전자, LG정보통신, 두원중공업, 만도기계, 제일모직, 은유항공정밀, 재영금형정공, 우주항공산업, 한화, 수성공업사, 세일중공업 (이상 20개사)
전자·보기 협의회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대한항공, 한라중공업, 현대기술개발, 기아기공, LG정밀, 삼성전자, 한화기계, 현대전자, 오리엔탈, LG정보통신, 금호, 동명중공업, 동서항공, 동양노즐, 두원중공업, 만도기계, 아시아나항공, 천지산업, 한벨헬리콥터, 환웅정공, 대흥기계, 재영금형정공, 서울차체공업, 우주항공산업, 동양강철, 세일중공업 (이상 28개사)
소재협의회	한국로스트왁스, 한국화이바, 삼선공업, 대신금속, 대한항공, 한라중공업, 한화기계, 금호, 만도기계, 삼미금속, 삼미종합특수강, 서울엔지니어링, 선일기계, 제일모직, 천지산업, 한국금형, 한일단조, 재영금형정공, 신라항공, 한화, 동양강철, 서울차륜공업 (이상 22개사)
엔진협의회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한라중공업, 현대기술개발, 한국로스트왁스, 한화기계, 한국화이바, 만도기계, 천지산업, 환웅정공, 은유항공정밀, 우주항공산업, 세일중공업 (이상 14개사)
초경량항공기 협의회	신라항공, 덕산항공, 동서항공, 동양노즐, 두원중공업, 우주항공산업, 동인산업, 은유항공정밀 (이상 8개사)

제2차 이사회 개최

협회 제2차 이사회가 4월 13일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요청에 의해 이수강 대표 이사를 해임하고 서울차륜공업주식회사 노광섭 대표이사를 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서울차륜주식회사는 Disc Wheel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로 항공기 Wheel 생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동 이사회에서는 중형항공기 국내 수요조사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다목적 실용위성과 중형항공기사업등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항공공업단지 설명회

항공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설명회가 4월13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체계적인 항공기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조립업체, 부품 생산업체, 시험평가시설 등이 집중된 전문단지의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작된 단지조성은 경남 사천의 [전사공업단지]를 확장하여 100만평 규모의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28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일중공업등 13개업체에서 15만1천평의 수요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에서 동 단지 계획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 실제 사업이 추진되면 더 많은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추진 우수기업 추천

협회는 4월7일 삼성항공등 5개사를 세계화 추진 우수기업으로 통상산업부에 추천했다. 이는 통상산업부에서 세계화 추진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협회에 추천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기술혁신 부문에 소형 산업용 가스터빈엔진을 개발한 삼성항공과 회전익 항공기 정비기술을 혁신한 한벨 헬리콥터를 추천했다. △고유상표디자인 부문에는 초경량항공기 독자모형을 개발한 동인산업과 신라항공을 △경영혁신 부문에는 21세기 국제적 초일류 공장 구현을 위한 공장혁신의 대한항공을 △기업활동영역의 세계화 부문에는 항공기 설계기술을 확보한 대우중공업을 △전략적 제휴 부문에는 민간연객기 국제공동개발에 참여한 대우중공업과 PW4000 대형 제트엔진 공동개발에 참여한 삼성항공을 각각 추천했다.

중형항공기사업조합 제2차심의위원회 개최

중형항공기사업조합은 4월15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조합내 업무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이다. 동 회의에서는 △사무공 운영비 예산(안) △회계처리규정(안) △심의위원 추가선임(안) △조합원 신규가입(안) 등 4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통상산업부, 항공우주연구소, 항공우주협회,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등에서 1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곽 부회장 일본 출장

곽병구 상근부회장, 삼성항공의 여영록이사등 총 4명은 지난 3월29일 3박4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일본의 항공산업 육성정책을 조사하고 일본의 항공기사업조합(일본항공기개발협회)의 사례를 조사하여 한국중형항공기사업조합의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방일기간중 일본 통상성 항공무기과장 등 실무진을 만나 한일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